



TG영무 박헌택 회장 전남대 발전기금 3억원 쾌척

TG영무 박헌택 회장이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발전기금으로 3억원을 기부했다.

기부금 전달식은 개교 70주년을 하루 앞둔 7일 박헌택회장, 김용일 부사장, 정성택 전남대학교 총장, 조성희 총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학교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박 회장은 “내가 졸업한 경영대학교 건물이 노후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고, 광주가 예향이라고 하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 예술대학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이사장 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차기 총동창회장으로 내정되어 있다. /이연수 기자



김왕석 강진군 주무관 헌혈증 기증

“어린 아들과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직접 헌혈도 하고 꾸준히 모은 헌혈증을 전남대어린이병원에 기증하게 됐습니다.”

전남대어린이병원에 헌혈증 100장을 기부한 강진군청 환경축산과 김왕석 주무관(41)이 헌혈증을 기부하게 된 배경이다.

김 주무관의 헌혈증 기증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과 지난해 2월에는 광주전남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에 각각 100장씩 총 200장을 전달했다. 지난해 11월 9일에는 소방의 날을 기념해 강진소방서에 119장의 헌혈증을 기증했다.

이 같은 김 주무관의 헌혈증 전달은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홍보한 후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헌혈증을 모아 기부하고 있다. 물론 본인도 직접 헌혈해서 참여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23년간 총 155회 헌혈한 헌혈왕이기도 하다.

김 주무관은 “고등학교 때 친구가 백혈병을 앓아 헌혈을 시작했는데 군청에 들어온 이후로는 2주에 1번 꾸준히 하고 있다”며 “주변에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오늘의 날씨

일출 05:18 일몰 12:53
일몰 19:45 월출 01:16

광주	16~25	광양	15~22
나주	15~24	순천	16~23
목포	17~23	여수	17~21

목포	만조 07:57 20:23 간조 00:39 13:48
여수	만조 03:03 15:52 간조 09:31 21:47

장성	15~25	영암	15~23	완도	17~22
담양	15~25	진도	16~23	강진	16~22
화순	15~24	신안	16~24	장흥	15~22
영광	15~24	흑산도	16~21	해남	16~22
함평	15~25	구례	14~24	고흥	15~22
무안	15~24	곡성	14~24	보성	14~22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내 작품 활동에 더욱 몰두하고 싶어”

서기문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갤러리S ‘메타버스’ 전 성료
고립·연결 등 대비되는 주제
작품 속 변화하는 시대정신

명 인물들을 사실적 묘사를 기반으로 패러디한 ‘동행’ 시리즈로 세간의 중심을 받았던 서기문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서양화)는 지난달 갤러리S에서 열린 개인전 ‘메타버스’를 통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작품을 선보였다.

“미술 선생님이로 활동하며 꾸준히 그림을 그리다 좋은 기회로 교수가 되어 강단에 올라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수로서 배운 것도, 깨달은 것도 많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하다 보니 막상 저의 작품 활동에는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제 자신의 작품 활동에 정진하고 싶다는 바람이 큼니다.”

사회 현실을 반영한 ‘시대 정신’을 중심으로 김대중, 노무현, 앤디 워홀, 마르셀 뒤샹 등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유

이번 개인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 각자 고립됐으나 연결돼 있다는 주제를 떠올리게 된 것 또한 순간의 일이었다.

“어느 날 아내와 집에서 각자 쉬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크게 웃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보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순간 고립된 방에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 연결돼 있는 그 모습에 알다가도 모를 이질감과 동시에 ‘아, 그림 속에 세



로운 시대정신을 녹여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 작가는 마치 그 모습이 지구를 연상시키는 ‘사과’와 현대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케이블’을 통해 서로 전

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고립’과 ‘연결’이라는 두 주제를 결합해 작품 속에 담아냈다.

“개인적으로는 작가로서 작품 속에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 또한 직접적인 대면이나 만남보다는 온라인 등을 통해 만나는 것을 선호하게 됐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정신을 작품 속에 담아내는 것이 앞으로도 제가 해 나아가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2년 정도 앞둔 지금 앞으로 더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싶다는 소망도 내비쳤다.

“그림 그리기를 업으로 삼다 교수라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처럼, 정년하고 나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소홀했던 작품 활동에 더 몰두하고 싶습니다. 결국, 작가는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통해 말해야 작가가니까요.” /오지현 기자

전남체육회·목포해양대 업무 협약

지역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

전남도체육회와 목포해양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해양스포츠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목포해양대 총장실에서 최기동 회장직무대행,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 김지현 해양스포츠센터장을 비롯한 해양스포츠단 지도자 및 선수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인·물적 자원의 상호 보완적인 교류와 전문체육 역

량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해양스포츠 진흥·저변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또 체육회는 지난 4월 창단한 목포해양대 해양스포츠단의 창단을 응원하는 의미로 창단지원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목포해양대 해양스포츠단은 조정, 카누, 요트 등 3개 종목과 총 14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선수단은 김지현 해양스포츠센터장과 김민석 코치를 필두로 조정 오윤재, 허병현(이상 3년), 카누 김경민, 장원우(이상 3년), 신진주, 권은희, 박민지, 백경한, 장현준, 박수현, 정우비(이상



1년), 요트 신현빈(1년)이다.

최기동 전남도체육회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에 특화된 해양스포츠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목포해양대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해양스포츠의 중

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은 “해양스포츠 진흥과 저변확대, 나아가 전남체육회 발전과 해양스포츠의 중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이달의 새농민상 선정

- 이홍식·고미정 부부
- 류상래·이경미 부부
- 정승수·최병옥 부부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는 6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이홍식·고미정 부부(광양시 진월면), 류상래·이경미 부부(보성군 벌교읍), 정승수·최병옥 부부(영광군 염산면)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 실천을 통해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과학화 및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을 지칭하는

영예로운 명칭으로, 매달(1, 8, 12월 제외)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아 농협중앙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이홍식·고미정 부부(섬진농원)는 1992년부터 30여년을 농업에 종사해온 농업인으로, 현재 4,000평 규모의 양상추, 수박, 파프리카 농사를 짓고 있다. 선진지 견학 및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영농기술을 후계농업인들에게 공유하는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공을

인정받아 이달의 새농민상에 선정됐다.

류상래·이경미 부부(상경농장)는 1988년 농업을 시작해 현재는 한우 230여마리 사육과 조사료배배를 통해 자립경영을 달성한 복합 영농인이다. 지속적인 사양관리, 조사료 자체생산을 통한 경영비 절감 등 지역 내 복합영농의 선두주자로서 다른 농가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정승수·최병옥 부부(오동한우농장)는 2000년 귀농해 축산업과 수도작을 병

행하고 있는 복합 영농인이다. 각종 교육 및 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노하우를 후계 농업인들에게 전수하는 등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서홍 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성진 기자

전매게시판

이웃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내실 곳 jndn@chol.com

결혼

▲김병렬(전남매일 이사)·김경순씨 전남 종현군, 전곡읍씨 차녀 장한별양=18일(토) 오후 1시 40분 서울 송파구 루이비스컨벤션 송파문정 아모리스홀(B1 F). ※광주 피로연=11일(토) 오후 5시 30분,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549 드메르 웨딩홀 연회장(지하 1층) 010-4601-5323.

알림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

주기 등(실비에 한함) 010-8602-0001.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학대 24시간 상담전화 학대피해노인전문 상담운영. 1577-138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니코틴·인터넷·약물·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 무료상담=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 후 진료·분만 혜택과 상담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222-9349.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법률구조. 면접 상

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광주 동구 준법로 3번지.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 1577-8339, 국번없이 132.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 주·금요일 오후 2시, 5시 무료상담 654-3802.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정신건강·자살위기 상담 전화 1577-0199.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서서비스(주 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

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신질환자에 대한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233-0468.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 351-120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국번없이1366.

▲사랑아들돌봄사업단=장애아동 행동보조, 인지능력향상, 무료간병사파견사업 진행, 대상 서구구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문의 351-3029,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